

# 폐석산 벽화조각 사업 중간보고회

### 김광우교수 "자연친화적인 사업으로 추진돼야" 강조



포천시 특화발전사업인 폐석산 벽화조각에 대한 연구용역 중간보고회가 용역연구진과 포천시정책위원회 문화복지분과위원, 포천시

의원 및 시 관계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28일, 포천시 청 소회의실에서 열렸다.

폐석산 벽화조각 관광특화사업은 국내의 유명 조각가들을 초빙해 원상복구가 어려운 폐석산을 활용, 벽화석 석벽 조각 작품을 만드는 것으로, 80mX150m 규모의 압벽에 조각작품을 구현, 국제적인 조각문화의 관광명소로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보고회에서 경기개발연구원 이정훈 박사는 ▷적락사업 후 보지 ▷폐석산 관광특화단지 기본구상 ▷포천 석조각 아트밸리 개발 기본구상 및 추진방안에 대한

연구 내용을 보고했다.

이날 중간보고회에 참석한 부산 동아대학교 김광우 교수는 "폐석산 벽화조각사업에는 원칙적으로 동의하지만 너무 인위적인 시설은 지양하는게 좋다는 의견을 개진했다"고 밝혀 환경친화적인 폐석산 벽화조각사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을 강조했다.

연구용역 기간은 5월 27일까지이며 이후 최종 보고회가 열릴 예정이다.

포천시는 올해 안에 기본설계와 입지선정,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도시계획시설 사업시행자 지정을 마치고 2008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2005년 3월 착공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김영복 기자 best114@hitel.net

# 신춘합동음악회 대진대와 반월아트홀서 열려

### 대진대학교 · 포천시 · 일본 Kwon's Vocal Ensemble

대진대학교와 포천시가 공동주최하고 대진대학교 예술대학 음악학부 주관으로 지난 21일 오후 2시에 대진대학교 학생회관 대강당에서, 오후 7시30분에는 포천 반월아트홀에서 신춘합동음악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연은 일본 Kwon's Vocal Ensemble와 대진대학교 음악학부가 함께 연주했다.

일본 Kwon's Vocal Ensemble은 이 와다 미유키 반주, 권태호 지휘로 벚꽃, 학, 아메리리아, 가시리 등

을 연주했다.

대진대학교 음악학부 오케스트라는 김동수 교수 지휘로 Overture- "La Gazza ladre Overture"를 연주했으며 대진대학교 음악학부 합창단 및 오케스트라는 소프라노 김혜주, 메조소프라노 안현경, 테너 신성섭, 바리톤 이상준을 중심으로 합창곡을 연주하기도 했다.

이날 공연에 대해 대진대학교 흥기형 총장은 "우리의 메마른 삶을 정서적으로 풍요롭게 해주고



아름답게 해주는 이번 음악회를 통해 포천시가 음악을 사랑하는 도시, 예술의 도시, 문화의 도시로 발전해 나가는데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 말했다.

박운국 포천시장은 "오늘 음악

회는 포천시민과 대진대학교와의 유대감화 및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한 파트너십을 더욱 돈독히 하는 계기를 마련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김영복 기자 best114@hitel.net

## 수필가 김창종의 <포천 이야기> (96)



### 봉수지 (烽燧址)

목적으로 하여 설치된 전근대 국가의 정치·군사적인 통신제도의 하나이다.(포천시 관내 소재 봉수일)

우리나라에는 "49년(의종3년: 고려초)에 확실한 봉수제의 출발이 있었으나, 조선시대 세종대에 이르러서야 관계규정을 강화하여 봉수선로를 일제히 확정하는 개혁을 단행하고 적의 동태변화에 따른 거화법(擧火法):1~5개 봉을 켜서 통신을 하는 방법의 나뉘기)을 정하여 현대적 통신체제로 전환하게 되는 1894년(고종31년) 전까지 이 제도가 원칙적으로 준수되어 봉수를 운영하였다.

포천시(군)내에는 조선시대 서울 남산(북악산) 중앙봉수로 집결되었던 전국5개 선로의 직봉로선(直烽路線)중 함경북도 경흥(慶興) 서수라(西水羅)의 우봉(右奉) 봉수대와 연결되었던 내지봉수(內地烽燧) 가운데 전술한바 같이 남북으로 5개소가 운영되었다.

할미산은 철원을 사요리 소리산 봉수 신호를 받아 적골산으로, 미로곡으로, 미로곡은 다시 독산으로 독산은 남재로 연결되는 바 남재는 남양주시 대이산 대이산은 아차산을 거쳐 남산(북악산)으로 경봉수(京烽燧)로 전달되었다 한다

그외 전설상의 봉수지가 5개소 있는데 반월산 봉수(구물리) 성동리 봉수(성동산성) 금화동 봉수(봉화동) 운악산 봉수(화현리 운악정사) 등이 있다. 역사상 어느 시대인가 봉수지였던 곳으로 추정된다.

봉수대 근무 봉군(烽軍)은 원군(元軍) 25명 보군(保軍) 75명이라는 정원이 1759년(영조35년)에 편찬된 「여지도서」에 영평현의 지리지에 언급되어 있는 바 통신군사(통신정보지 관군)가 봉수대를 관리 운영하였음을 알 수 있다.

최근 포천군 출신 모범 체신 공무원이나 정보통신부 공직자들이 고향의 정보통신 업무를 위해 열사 봉공하였으며, 명예로운 정년 퇴직을 한 정보통신 공무원들이 다수 있었다는 사실도 봉수지를 5개소나 갖추고 있었던 통신기능의 요충지였음이 아니었나 생각되어진다.

필자연락처 : 02)832-2434

## 포천의 명현탐구 (93)

### 정기안(鄭基安) · 1695(숙종21)~1767(영조43)



리효종 (포천향토사연구소장)

문신 본관은 온양(溫陽), 초명은 사안(思安). 자는 안세(安世), 호는 만모(晩慕)로 유신(維新)의 자이다.

1728년(영조4) 별시문과(別試文科)에 급제하여 여러 관직을 두루 거쳐 1738년(영조14)에는 사헌부 지평(司憲府持平)이 되었다. 이때부터 사간원 정언(司諫院正言)과 사헌부 지평 자리를 왕래하길 13년이나 되었다.

1751년(영조27)4월 문학(文學)이 되고 이어서 사간원 사간(司諫院 司諫)으로 승진하였다.

이가 70세 이상이어야 했으면 임금이 높으면 여기에 참가하여 이름을 올렸다. 이따기다.

### 유학은 물론 불교, 도교, 천문, 의술, 음률에 정통 정기안의 묘는 가산면 가산리 41번지에 있어

1752년(영조28) 동지사은사(冬至謝恩使)의 서장관(書狀官)이 되어 청나라에 다녀와서 세자시강원 보덕(世子 侍講院 輔德)이 되었다가 그 후 1755년(영조31) 승정원 승지(承政院 承旨)가 되었다.

이후 대사간(大司諫), 지중추부사(知中樞府事)를 역임하고 1766년(영조42) 한성우윤(漢城右尹)을 역임하였다.

장수하여 기로소(耆老所-조선조 때 노인들을 예우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이다. 기로소에 들러면 정2품 이상의 실직을 지낸 사람으로서 나

기로소는 임금과 신하가 동참하는 것이라 하여 관청의 서열도 으뜸으로 쳤다. 조정에서는 계절에 따라 기로연을 베풀었다. 따라서 기로소에 드는 것은 최고의 영예로 여겼다. 기로소에 들러면 반드시 문과출신 문관이어야 하며 무관이나 음관은 들어갈 수 없었다에 들었다.

정기안은 유학은 물론 불교(佛敎), 도교(道敎), 천문(天文), 의술(醫術), 음률(音律)에까지 정통하였다.

문장(文章)에도 능하였고 산수화(山水畵)에도 일가를 이루었다고 한다. 시호(諡號)는 효헌(孝憲)이다.



▲ 정기안 묘

아들은 만석(晩錫)으로 우의정을 역임한 명상(名相)이었다. 자귀로 영의정에 추증되었다.

저서로는 만묘유적(晩慕遺蹟)이 있고, 묘는 가산면 가산리에 41번지에 있으며 포천시 향토유적 제11호로 지정되어 있다.

묘 앞에는 2기의 묘비와 상석, 향로석, 망주석 등이 배치되어 있다. 묘는 정경부인 진주유씨와 안산김씨를 합장하는데 봉분 하단에는 낮은 호석을 둘렀으며 그 높이는 1.8m,둘레도 1.8m이다. 중앙에 위치한 옥개를 갖춘 대리석 묘비는 1831년(순조31) 아들 정만석이 세운 것이다.

## 제1회 천상명예술제 성료

### 시인의 작품세계 재조명의 기회

경기문화재단과 의정부예술의전당이 공동주최한 제1회 천상명예술제가 지난 20일부터 30일까지 천상명시인기념사업회와 문인협회 의정부지부, 미술협회의정부지부, 의정부시무용단 주관으로 진행되고 천상명 시인의 작품세계를 다시 돌아보는 계기를 마련했다.

의정부에서 생을 마감한 고 천상명시인을 기리기 위해 마련된 이번 예술제는 천상 시화전이 지난 20일부터 30일까지 소극장 로비에서 중앙화단 및 지역미술인, 타 지역 등 전국 화가 30여명이 천 시인의 시로 시화를 제작 전시했다. 또 강연회 및 음악회 시낭송회는 지난 23일 오후 7시 의정부

예술의전당 소극장에서 시인이자 한국문인협회 회장을 역임한 성춘복 선생이 시인의 삶과 시세계 등을 강연했고 연극배우, 시낭송가, 의사, 학생들이 참여하는 시낭송회와 화회정의 음악예상이 주관하는 실내악연주회도 가졌다.

지난24일 토요일 오후4시 의정부예술의전당 대극장에서는 의정부시무용단 창작무용극 귀천이 시인의 삶과 대표적인 시 7편을 바탕으로 한 무용극을 무대에 올렸다. 또 지난 25일 오후5시 대극장에서 천상음악회를 개최하여 노래하는 음악시인 이동원씨와 소리꾼 장사익 씨의 노래와 합창곡 귀천을 의정부시합창단의 연주로 공연



했다.

천상백일장 대회가 25일 오후1시부터6시까지 야외광장에서 천상명 시인과 관련된 주제로 백일장 대회가 실시됐다.

폐막 리셉션은 25일 오후6시30분 소극장 로비에서 천상음악회를 마친후에 가졌다.

김영복 기자 best114@hitel.net

# 국내 최초 슬라이드형 담배 'ZEST' 출시

## 이제는 옆으로 밀어서 개봉하세요!!

KT&G가 국내 최초로 옆으로 밀어서 개봉하는 슬라이드형 담배, 'ZEST(제스트)'를 개발, 5월 1일날 출시한다. 소비자가는 갑당 2,300원이다.

ZEST는 기존 발매되던 담배가 소프트팩/하드팩 구분 없이 담배갑 뒷부분을 개봉하여 내용물을 꺼내던 형태에서 탈피하여 옆으로 밀어서 꺼내는 독특한 형태의 담배이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 이 제품은 2중의 담배갑으로 구성되어 있고, 안쪽의 갑은 마치 장롱 서랍처럼 되어 있어 비깅쪽 갑의 한쪽 옆면을 통해 반대쪽으로 밀어야만 열 수 있게 되어 있다.

따라서 이 타입을 슬라이드형 제품이라고 하며, 국내에서는 물론 최초로 시도되는 브랜드이다. 전 세계적으로도 미국 일부 주에서 이런 형태의 제품이 일종의 시장테스트 차원에서 선보였다고 보고되고 있을 뿐이어서, 전국적으로 발매되는 제품으로도 ZEST는 세계 최초인 셈이다.

KT&G가 이러한 새롭고 독특한 타입의 제품을 과감히 시도하는 것은 국내 시장 리더로서의 자신감의 표현이며, 기존 천편일률적인 형태의 이미지에서 탈피, 고객에게 신선하고 창의적이면서 다소 파격적이기까지 한 이미지의 부여를 통해 궁극적으로 마케팅 리더십 구축 및 시장경쟁력 강화를 위함이다.

ZEST 제품 특징을 살펴보면 권련길이 82mm의 슬라이드 박스 포장형 제품이며, 개비당 연기성분은 타르 6mg / 니코틴 0.5mg이다. 담배의 맛과 향을 중시하는 20~30대 젊은층을 타겟으로 설계된 제품으로 연강감은 풍부하게 하되, 은은한 카푸치노향을 사용하여 부드러운 목넘김을 동시에 구현하였다.

타겟 층의 이미지에 맞게 제품명을 '열정'을 의미하는 'ZEST'로 하였으며, 제품디자인 또한 'ZEST'의 'Z'를 진 푸른색으로 형상화하여 담배갑 전면에 강렬하게 배치시켰다.

특히 이 'Z'의 심볼은 담배갑이 닫힌 상태에서는 한쪽이 잘려진 형태로만 보이지만, 담배갑을 완전히 개봉할 경우 전체가 드러나게 되어 있어 디자인에 있어서의 미적 완성도까지 고려하였다.

(주) KT&G

